창종 77주년 법화종, 전법포교 매진한다

6월 27일 영월문화회관서 창종기념법회

영월=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창종 제77주년을 맞은 대한불교법화종이 전법 포교를 비롯한 대외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장 관효)은 6월 27일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영월문화예술회관에서 '남북평화통일과 국가경제 회복 기원 대한불교법화종 창종 제7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화종은 종정 도선 스님의 교시와 함께 제20대 집행부에서 진행 예정인 종단 진흥책도 발표했다.

종정 도선 스님은 "종단 사부대중에 이르노니 창종 77주년을 맞아 대중화합과 원융살림에 진력을 다하라"며 "특히 전법포교가 없으면 종단 발전도 없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포교원이 복원된 만큼 종도대중이 힘을 모아 포교에 힘을 모아달라"고 법어를 내렸다.

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학술, 문화예술, 신행의 3대 분야에서 창종 80주년 사업을 진행할 것을 전했다. 스님은 "20대 기조인 '참회와 혁신으로 승가공동체 정신 회복'에 역점을 둔 것에 이어 전법과 포교에 진력을 다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올해 종단 통일가사 불사를 추진하고, 11월 총본산 안정사에서 가사 합동점안과 가사 수여식을 봉행한다"며 "창종 80주년을 앞두고 기념사업회를 발족하고 개종조 혜일 정각 스님의 법화사상을 고찰하는 학술 대회를 비롯하여, 법화종 영산재 시연, 창작국악교성곡을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스님은 총본산 안정사 또한 종단 안정사운영발전위 구성과 함께 재단법인화도 시사했다. 스님은 "총본산 안정사에 집약된 지원과 열정을 쏟아부어 총본산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각 종단 기관과 합동회의를 통하여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종단 내실을 다지며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원로원 의장 보명 스님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창립을 발기하고 발족시킨 종단으로서 교세가 당시 맹위를 떨쳤다. 법화신앙을 믿고 따르며 실천하는 법화행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며 "새로운 종단 부흥을 이끌 총무원 집행부가 주요 종무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어 든든한 마음 그지없다. 종단 미래를 향한 구체적 과제가 발표된 만큼 차근 차근 추진해 나가길 바라며, 종단 각 기관과 종도들이 다함께 뜻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창종 제77주년을 맞은 대한불교법화종 창종기념법회에 참석한 종단 주요 스님들이 종단발전을 서원하며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종정 도선 스님 교시 내려
"전법포교 통한 발전" 당부
새로운 포교원 구성과 함께
총무원장 관효 스님 비롯한
집행부 2년차 계획 발표해

종단 통일가사 불사 추진과
법화신행수기 공모전 예정
총본산 안정사 발전위 출범
법화공덕회 발족 등도 눈길

법화 미래를 열자'를 기치로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창종기념법회는 지역교구 활성화 방침에 따라 강원교구에서 열리게 됐다. 법화종 강원교구는 3개월 넘게 이번 창종법회를 준비했다. 법화종 강원교구는 창종기념법회에서 영월군 장학회와 영월군 사회복지협의회에 각각 200만원을 전달했다.

법화종 강원교구 종무원장 승일 스님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대한불교법화종 창종 77주년 기념법회가 봉행되어 자치도 앞날에 부처님 가피와 법화공덕이 함께 할 것"이라며 "강원교구는 깊은 화합을 바탕으로 홍법 호국과 제세안민의 종지를 받들어 법화종도로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창종기념법회에서는 경북교구 대종사 도광 스님과 대종사 법원 스님이 원로의원으로 선임되어 종정 도선 스님으로부터 선임장을 받았으며, 부산교구 종무원장 법경 스님, 강원교구 종회의장 지우 스님, 전라교구 미륵암 주지 법연 스님, 충북교구 동가섭사 주지 도광 스님, 부산교구 종회의장 수월 스님, 김창교구 백련사 주지 정원 스님, 직할교구 약수암 주지 혜주 스님 등이 공로패를 받았다. 또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축사가 법상종 총무원장 혜월 스님 대독을 통해 전해졌으며, 영월불교사암연합회장 삼혜 스님과 최명서 영월군수, 심재섭 영월군의회 의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창종기념법회는 권계화 강원교구 법상사 신도회장의 선창 아래 대중들이 발원문을 함께 낭송하며 막을 내렸다.

법화종도들은 발원문을 통해 "온 누리 수승한 공간마다 통일도량을 함께 세우며 묘법의 연꽃을 피울 수 있도록 가호하여 주시옵소서. 일흔일곱번째 법화보탑을 쌓은 오늘 이 인연공덕으로 무상보리 이루는 길이 고루 닦아지길 기원한다"고 마음을 모았다.

한편, 이날 창종기념법회에는 종정 도선 스님을 비롯하여 원로의장 보명 스님, 원로부의장 근파 스님, 원로의원 농파 진파 암현 도광 법원 스님, 법화종 총무원장 관효 스님, 중앙종회의장 서안 스님, 포교원장 일우 스님, 종회 수석부의장 법연 스님 등 종회의원 스님, 강원종무원장 승일 스님, 부산종무원장 법경 스님, 경북종무원장 해월 스님, 충북종무원장 지성 스님, 마산종무원장 현진 스님, 김창종무원장 송열 스님, 창녕종무원장 법상 스님, 경주종무원장 혜문 스님, 전라종무원장 정각 스님 등 전국 종무원 종도, 총무원 총무부장 현묵 스님, 사회부장 청암 스님, 교무부장 법경 스님, 감찰부장 원담 스님 등 종단 교역직 스님과 종도 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500년 전 월남사지 대웅보전 복원되다

월남사, 대웅보전 낙성 · 삼존불 점안법회

고려시대에 조성된 삼층석탑이 남아 있는 월남사에 500년 전 대웅보전이 복원됐다.

전남 강진 월남사(주지 법화)는 6월 24일 옛 대가람의 기록을 찾아 복원불사를 시작한 지 11년 만에 삼존불 점안식과 대웅보전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대흥사 조실 보선 스님을 증명으로 낙성한 대웅보전은 고려시대 양식을 복원해 정면 3칸, 측면 3칸의 주심포 팔작지붕양식 27평의 크기로, 원래 발굴된 금당지 유구 위에 세웠다. 이날 낙성한 대웅보전에는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아미타, 약사여래 삼존불이 모셔져 점안했다.

보선 스님은 법문을 통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법당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법화 스님과 대중들의 원만한 노력으로 부처님 법이 천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법당이 조성됐다"며 "앞으로 월남사가 천년의 세월 동안 중생들을 행복을 전하는 도량이 될 것"이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월남사 주지 법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조계종 월남사가 시작된 날이 2012년 6월이다. 막연했던 월남사가 11년 동안 발굴 10여 차례, 옛 월남사 인법당을 해체하고 임시법당에서의 7년, 그리고 천년을 한결같이 이 도량을 지켜온 삼층석탑을 3년에 걸쳐 해체 · 보수했다"며 "부처님 일은 주지의 힘이 아닌 도량의 힘이고 부처님의 가피였다. 동참 대중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은 치사에서 "전쟁의 화마로 소실된 월남사 대웅보전 복원은 과거의 아픔을 현재의 노력으로 극복하고, 예전의 모습과 가치를 품과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며 "월남사지 복원이 이뤄진다면 월출산과 함께 강진을 대표하는 명찰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남 강진 월남사는 6월 24일 대웅보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월남사지는 지난 1994년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2011년 시굴조사,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0차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7월부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웅보전 복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2021년 본격적인 복원 설계에 들어가 월남사지삼층석탑의 조성시기로 추정되는 고려 중기의 주심포 양식의 건물로 계획해, 기존 금당지의 기단 지대석을 재사용하여 이날 낙성식을 봉행했다.

월남사 신도회는 대흥사에 승려복지기금 300만원을, 강진군에는 장학금 300만원을 각각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호남대 불교회 창립…대학생 포교 견인

6월23일 빛고을포교원서 법회
초대 지도법사 연상 스님 모셔

광주 지역 대학생, 청년 포교를 견인하기 위한 대학교 불교회가 새로 창립됐다.

광주 지역 종합대학인 호남대 불교회는 6월 23일 화엄사 빛고을포교원 대웅전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새로 창립된 호남대 불교회는 전현진(뷰티미용과), 진경미(항공서비스), 강현주(한국어), 신선혜(교양학부), 왕루(시각융합디자인), 손완이(중국어), 김신정(교양학부) 등 교수 7명이 참여해 학생들을 위한 포교활동을 펼친다. 학생으로는 회장 김소은(뷰티미용), 부회장 임준(뷰티미용) 학생 등 11명이 동아리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첫 지도법사로 취임한 주지 연성 스님은 법문을 통해 "모두가 행복했으면 한다. 행복하기 위해 조금 더 자주, 길게 행복하기 위해 지혜로워야 한다"며 "불교공부를 통해 그 행복한 방법을 찾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성 스님은 첫 출발한 교수와 학생 불자들에게 불교성전과 108염주, 단주 등을 선물로 전달하기도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정광학원 제15대 이사장 자공 스님 취임

6월 28일 취임법회 봉행

광주 지역 불교종립학원인 학교법인 정광학원 제15대 이사장에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이 취임했다.<사진>

6월 28일 정광학원 대승원 법당에서 진행한 취임식에서 자공 스님은 "선배 스님들께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학원을 설립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며 "교육은 우리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재)아름다운동행에서 진행한 탄자니아 학교설립에 대한 예를 든 자공 스님은 "교육은 교사가 바뀌어야 학생이 바뀌고, 학생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서 "올바른 교육을 위해 교직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안 쌍봉사, 장애인 초청 잔치 한마당

2회 장애인 사랑나눔 어울림마당
시·청각, 지체장애인 150명 초청
공연·장기자랑으로 즐거운 하루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와 쌍봉사 섬김봉사단, 반찬봉산단은 6월 23일 쌍봉사 앞마당에서 지역 장애인 150여명을 초청해 '제2회 사랑나눔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사진>

진안군관내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꿈드레, 보듬청소년복지관 등과 진안군 사회복지사협회, 쌍봉사 섬김봉사단, 반찬봉사단 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나눔과 봉사의 한마당이 펼쳐졌다.

장애인 자원봉사자들의 축하공연으로 막을 연 이날 어울림 한마당은 주채연 등 초청가수들의 공연과 장애인들의 장기자랑, 봉사자들의 축하공연 등으로 일반인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또한 쌍봉사 보경 스님과 불자들, 섬김봉사단, 반찬봉사단의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을 함께 나누며 장애인들의 고충과 사회복지사의 노고를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춘성 진안군수는 "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준 보경 스님과 섬김봉사단, 사회복지사분들께 감사드린다" 며 "맛난 음식도 많이 드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며 잘사는 진안, 행복한 진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예전부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봉사를 해오고 있던 중 좀 더 폭을 넓혀 진안 지역의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을 마련했다" 며 "모두가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모두 이렇게 행복한 웃음을 볼 수 있어 너무 좋다.작은 정성이지만 준비한 음식을 맛나게 드시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일붕선교종, 일붕존자 27주기 다례재

6월 26일 서울 종로 일붕선원서

세계 초대법왕인 일붕 서경보 존자의 열반 27주기를 맞아 생전 주석처였던 서울 종로구 일붕선원에서 추모다례재가 열렸다.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총무원장 혜일)은 6월 26일 일붕선원서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다례재에는 총무원장 혜일 스님을 비롯하여 원로의장 대륜, 명예이사장 경원, 재단이사장 일명, 종회의장 도정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사진>

이날 총무원장 혜일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일붕존자께서는 세계불교법왕청 설립 제안 후 세계 30여 불교국 지지로 1992년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만장일치로 세계불교 초대법왕으로 봉대 받았다. 1990년 한국불교 최초로 세계불교도 서울대회를 유치하였으며, 불교 위상을 높였다"며 "일붕선교종 전 종도들은 존자의 가르침을 이어 화합하고 단결하여 유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3월 12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혜일 스님은 이번 다례재에 이어 적극적인 종단 활동의 기치를 걸고 역할을 맡은 각 임원 스님들의 동참도 촉구했다.



재단법인 이사장 일명 스님도 추모사를 통해 "일붕존자께서는 수행자의 귀감이었으며 자랑스러운 스승이셨다.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수행정진하여 중생제도의 서원을 실천해가자"고 당부했다.

중앙종회의장 도정 스님도 추모사를 통해 "일붕존자께서는 동국대 불교대학장을 지내시고 해외 유수대학 교수 등을 지내며 수많은 제자를 배출하셨다. 서양은 물론 아프리카 오지까지 전 세계 157개국을 종횡무진하신 스님은 대사상가이자 세계평화에도 기여한 평화운동가"라며 "종단 발전과 함께 종도들의 정진은 불교중흥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고창 선운사 아미타 염불 철야정진 재개

코로나 19이후 4년만… 100여 염불행자 동참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아미타 염불 철야정진 법회를 재개했다.

선운사는 6월 24일과 25일 1박2일의 일정으로 '아미타 염불수행 철야정진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선운사 성보박물관에서 진행된 입재 법회는 동효 스님을 비롯해 지도법사 청목 스님과 선운사 재무 수찬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들과 아미타 염불 행자 100여 명이 동참했다.



아미타염불수행을 지도해온 동효 스님은 "수행은 반복의 연속으로 반복되다 보면 싫증나기 마련"이라며 "익숙하지 않은 것은 어려운 법이니 다 함께 모여 수행법을 익혀 정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